

Session 02 산상 수훈 개관 (마 5-7 장)

(Overview of Sermon on the Mount)

I. 산상 수훈: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A. 나는 산상 수훈을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윤리)으로 부른다. 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협력해나가는 성도의 역할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언급이며, 우리의 영적 발전 정도와 사역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과도 같다.

B. 예수님께서서는 이 설교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순종으로 부르시며, 이를 그들의 삶의 주 목적으로 삼을 것으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를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빛 안에서 걸어감으로 행해나갈 수 있다. 순종을 추구하는 것은 순종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는 다르다.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당신이 받는 모든 빛 안에서 걸어감) (마 5:48)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며(마 5:3-12), 동시에 100 배의 순종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마 5:48). 팔복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활짝 꽃 피우기를 원하시는 8 개의 아름다운 꽃과 같다. 팔복은 사랑, 거룩, 영적 성숙에 대해 정의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준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는 이 명령을 지키며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5:3-10)

D.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관계된 6 가지의 유혹을 뿌리침으로(5:21-48) “정원의 잡초를 뽑으며”, 5 가지의 활동을 추구함으로(6:1-18) “정원에 물을 줌으로” 이 8 가지 꽃을 기경해 나가야 한다.

II. 빛과 소금: 영향력을 끼칠 것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 (마 5:13-16)

A. 예수님께서서는 팔복의 삶(마 5:13-16)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영향력을 빛(인도하심, 생명)과 소금(향기, 보존)이라는 상징을 통해 언급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3-16)

- B. 예수님께서서는 구약과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나 약속들, 도덕적인 계명들을 폐하러(무효화 또는 축소)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다(마 5:17-18).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고 명령하셨던 모든 것이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모든 열방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다.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7-18)

III. 위대함(큰 자가 될 것)으로의 초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열심을 유지함 (마 5:19-20)

- A.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든지 팔복을 행함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위대하게 될 것에 대해, 모든 이들을 초청하신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

- B. 우리가 크게 됨(위대해짐)을 갈망하는 것은 회개할 부분이 아닌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갈망을 가지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구할 때는 이를 회개해야 한다. 위대함을 향한 여정(journey to greatness)의 패러다임 없이는, 산상 수훈의 삶의 방식은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자로 부르시는데, 이는 외적인 성취나 사역의 크기와 관계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사랑과 순결과 겸손이 자라나고, 말씀의 이해함이 자라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IV. 6 가지 유혹을 뿌리치기: 우리 정원의 잡초를 뽑아내기 (마 5:21-48)

- A.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마음의 죄들의 6 가지 영역을 조명해주셨다. 분노(살인의 영, 마 5:21-26), 간음(음란의 영, 마 5:27-30), 혼인 언약을 멸시하는 것(관계에 충성치 않음, 마 5:31-32), 헛맹세(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한 조종하는 영, 마 5:33-37), 개인적인 불편에 대한 보복(복수의 영, 마 5:38-42), 그리고 잘못된 취급을 받을 때 수동적이 됨 (적극적인 사랑을 거절함, 마 5:43-47).
- B. 이 원칙들은 빛과 소금이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의 실제적인 방법들이다.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완성해나가는지를 점차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순종하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아나가게 된다.
- C. 예수님께서서는 이 부분을 마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며, 성숙하게 순종하도록 초청하신다.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V.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추구하기: 우리의 정원에 물을 줌 (마 6:1-20)

A.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5 가지 활동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기고, 구제하며(자비로운 행위: 봉사하며 연보함, 6:1-4, 19-21), 기도하고(6:5-13), 원수를 축복(온전한 용서, 6:14-15; 5:44)하고 금식(6:16-18)하는 것이다. 이 활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영적인 훈련들이다.

4 네 구제할(섬기거나 재정을 보탬)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14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마 6:4-20)

B. 우리의 거룩한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얻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의 모닥불” 앞에 두는 일이다. 우리가 이 훈련들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 사랑하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 금식과 함께 섬기고, 구제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들은,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은 은혜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필수적인 방법들이다(약 4:6).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약 4:6)

D. 이 다섯 가지 영역들은 “자발적인 연약함”의 표현으로써, 우리의 자연적인 힘들을(시간, 재정, 에너지, 명성 등)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 일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힘을 자신의 안락과 부와 명성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금식의 삶에서는 우리는 우리 힘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며, 이는 그분이 우리의 개인 환경들을 부요케 하시며, 우리를 겸손 가운데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발적인 연약함)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고후 12:9)

VI. 상급과 공급하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추구함 (마 6:20-34)

A.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되,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히 11:6).

6 믿음(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 11:6)

- B.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의 마음과 순종을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재정과 소유의 부분에 **확신을** 가질 필요를 언급하셨다(마 6:20-3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상급**(영원한, 그리고 이생의, 6:20-24)과 **그분의 공급하심**(6:24-33)을 확신할 것을 부르신다.

4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한글 KJV: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18... 은밀한 중에 (네 금식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한글 KJV: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4-24)

- C. 재정과 연관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추구하는지의 부분은, 팔복 가운데 살아나가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 됨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신다. 두려움은 우리가 팔복을 실제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25-33)

- D. 하나님께서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빛으로 가득 찬 생명력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 삶의 비전이 팔복에 순종하고 이를 가르치는 것에 있음을 말하며, 즉 여섯 가지 유혹(마 5:21-48)을 뿌리치며 다섯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활동들(마 6:1-20)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가져오는 등불은 “우리 마음의 눈”을 말하며,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한다.

22 (마음의) 눈은 몸의 등불(빛의 근원)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 6:22-23)

VII. 새로운 관계적인 도전에 직면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마 7:1-20)

- A. 우리가 마태복음 5-6 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 나감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관계적인 역동성의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떤 부분은 긍정적이며, 어떤 부분은 부정적이기도 하다. 새로운 관계들은 옛 것들이 교체됨으로 새롭게 세워진다(때로는 오래된 것들이 향상되며, 때로는 무너지기도 한다).
- B. 우리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추구하지 않거나(7:1-5), 우리를 반대하는(7:6) 이들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길 구하며(7:7-12),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로부터 물러나지 않으며(7:13-14), 은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들을 분별해내야 한다(7:15-20).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빠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 7:1-6)

- C. 기도에 대한 아래의 말씀은 특정 문맥 안에서 주어졌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개입해 주시며(7:7-12),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 환경을 선하게 바꿔주시길 구하는 문맥 안에서 주어졌다(7:7-12). 사람들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법으로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로 초청하신다(12 절). 우리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의 자연적인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도의 영이 우리의 최선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마 7:7-12).

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11 ...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7-12)

- D. 우리는 관계의 충돌로 인해 예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물러나서는 안되며(7:13-14), 은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나 거짓 사역에 속아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7:15-20).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 16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 (마 7:13-16)

VIII. 우리의 사랑과 순종은 시험되며 증명될 것이다 (마 7:21-27)

- A. 우리의 사랑과 순종은 시험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고난 아래에서 우리의 진실됨이 증명될 것이다(마 7:21-27).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인내해나갈 것인가? 고난의 폭풍, 종말론적인 고난(살후 2:3-4)과 마지막 심판(고전 3:10-15)은 우리 삶의 진실됨을 나타내줄 것이다.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21-27)

- B.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길이 있다. 어떤 이들은 넓은 길을 택하며, 어떤 이들은 좁은 길을 택한다. 두 가지 길 모두, 이생의 고난을 통해 시험될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시험되어 드러날 것이다.

- C. 정리: 산상 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팔복(5:3-12)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며, 이와 함께 100 배의 순종을 추구하며(5:48), 6 가지 유혹을 뿌리치며(5:21-48), 하나님 나라의 5 가지 활동을 추구함으로(6:1-20)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초청하신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주시는 상급(영원한/이생의, 6:20-24)과 그분의 공급하심(6:25-33)을 확신하며 나아간다. 우리는 이를 다른 이들, 즉 하나님을 덜 열심히 추구하거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이를 행해 나간다(7:1-6). 이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주시기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에서 물려남이 없이 하며, 은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분별하며 행해나간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하되, 우리의 순종이 시험될 것을 알고 행해나간다(7:21-27).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를 행해나감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5:13-16), 그 분 앞에 큰 자가 되며(5:19),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며(6:19-20), 이생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은혜로 인해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6:22-23).